



### 베트남 남동부 해상 15-1광구 대규모 원유·가스전 발견 3억배럴 초경질 원유와 4조 입방피트 가스부존 확인

한국석유공사와 SK(주)가 참여 중인 베트남 남동부 해상 메콩 분지의 15-1 광구에서 양질의 대규모 초경질 원유와 가스층이 추가로 확인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3년 11월 발견해 작년 8월부터 평가작업을 진행해 온 15-1광구 내 스투장(백사자) 구조에 대한 산출시험 결과 3억배럴의 초경질 원유와 3~4조 입방피트의 대규모 가스부존 확인에 성공했다고 지난 2월 7일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우리나라 연간 원유도입량 8억배럴의 40%, 가스도입량 1조1천억 입방피트의 3배에

각각 해당한다.

산자부는 올해 중 추가로 예정된 평가시추를 하면 매장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외유전개발 성공사례로 현재 하루 7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 15-1광구 개발에는 석유공사가 14.25%, SK가 9.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15-1광구의 총 원유 확인매장량은 흑사자와 금사자구조의 7억2천만 배럴에다 이번에 확인된 백사자구조와 작년 발견된 갈사자구조의 추정매장량을 포함하면 11억4천만배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자부는 백사자 구조의 생산이 본격 시작되는 2011년경에는 15-1광구가 하루 2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베트남 내 최대유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석유공사와 LG상사, 대성, 대우, 삼환, 현대 등 국내 기업들이 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베트남 11-2광구의 가스전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2004년말 시작된 11-2광구 가스전 개발은 작년 베트남 측과 가스매매계약 체결과 정부보증계약, 가스수송계약 체결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산자부는 덧붙였다.

#### 전력·전기 신기술 지원 창업투자조합 설립 추진 첨단IT기술 전력산업 접목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전력 및 전기산업 중소 벤처기업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400억원 규모의 창업투자조합 결성계획 등 올해 '전력IT사업'의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월 20일, 정부와 전력·전기 분야 산학연 CEO급으로 구성된 '전력IT추진위원회'(위원장 이원걸 산자부 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전력IT사업은 첨단IT기술 등을 전력산업에 접목하여 기존 전력시스템을 지능화하고 전력 및 전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전력, 전기산업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마련된 전력IT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창업투자조합 결성, 전력IT 연구개발 추진, 전력IT 인력

양성센터 설립, 전력IT 표준화 사업, 전력선통신(PLC) 사업 활성화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력, 전기분야 전문 창업투자조합은 3월에 운영주체인 창업투자회사를 공모하여, 상반기내에 최종 운용주체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창업투자조합은 정부, 전력분야 공기업, 민간기관 등이 총 4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개 창투자조합이 각 200억원씩 운영하게 된다. 또한, 전력IT 분야의 신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력IT 인력양성센터」를 올해 내 설립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사업은 지난해 착수된 9대 핵심연구개발사업에 정부와 민간이 5년여간 2,500억원을 투자하여 중점 관리하고, 금년에도 관련 전문가의 연구기획과 산업체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력IT분야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에너지소식

### 올 국내 에너지 총수요 3.2% 증가한 2억3,680만톤 전망 에너지가격 인상 및 난방용 수요급증 기술적 반락 반영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에너지 총수요는 3.2% 증가한 2억3천680만TOE(석유환산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의 총에너지 수요 증가율 4.2%보다 낮은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로 전망되지만 에너지 가격의 인상과 지난해의 난방용 수요 급증에 대한 기술적 반락, 나프타 수요 둔화 등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수요가 7억 6천970만 배럴로 작년보다 0.7%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 수요는 올해 신규 설비증설이 없어 1.6% 증가하고 석탄은 발전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3.4%, 수

력수요는 4.3%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LNG 수요는 발전용 수요 증가에 힘입어 11.0%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최종 소비단계의 최종에너지 수요는 2.2% 증가한 1억7천690만TOE로 증가율이 작년의 3.6%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2.9%를 기록하고 수송부문은 0.9%, 가정, 상업, 공공부문은 1.6%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최종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에너지원별로 보면 전력은 6.1%, 도시가스는 3.5%, 석유는 0.6%, 석탄은 0.3%로 전망됐다.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을 보면 석

유는 2001년 61%에서 2002년 59.9%, 2003년 58.6%, 2004년 57.5%, 2005년 56.2%로 낮아지는 추세를 올해도 이어가 55.3%로 떨어지고 전력은 17.3%, 석탄은 12.7%, 도시가스는 10.6%의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2005~2010년의 총 에너지 수요는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여 2010년에는 2005년보다 15% 증가한 2억6천370만TOE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유가 40%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석탄은 25.8%, LNG는 14.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올 천연가스 판매 작년대비 3.3% 증가한 2,360만톤 전망 주택난방용은 공급지역 및 수요증가로 842만2,000톤 예상

올해 천연가스 판매는 작년 실적 2,285만4,000톤보다 3.3% 증가한 2,359만9,000톤에 달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계획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용의 경우 전년실적 1,403만3,000톤보다 3.7% 증가한 1,455만5,000톤, 발전용의 경우 전년실적 882만1,000톤보다 2.5% 증가한 904만4,000톤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 매출액도 전년 11조661억원보다 13% 증가한 12조5,024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도별 판매계획 중 주택난방용은 공급지역 확대 및 수요가 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6% 증가한 842만2,000톤으로 계획했다. 이는 올해 흥성, 예

산, 나주지역의 신규 공급에 따라 수요가수가 1,209만가구로 전년보다 5.5%(63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일반용은 민간소비 증가로 인한 스포츠 시설, 음식점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134만7,000톤으로 계획했으며 난방용은 올해 흡수식 냉방기 및 GHP 신규보급이 1,000개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대비 10.1% 증가한 29만5,000톤으로 계획했다.

산업용은 직공급 산업체가 2005년 14개소에서 17개소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수요개발 노력과 경기 회복으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380만8,000톤으로 전망했다. 열병합용 및 기타용은 정부의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와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한 68만톤으로 예상했다.



## 에너지소식

# 한·일 양국 핵융합 연구 ITER 공동개발 협력 강화 국내 핵융합 연구개발 역량 선진화 및 최첨단화 기반 마련

핵융합 연구에 대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이 강화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25일 과기부 과천청사에서 제2차 한·일 핵융합공동조정관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핵융합 연구 및 ITER 공동 개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의는 양국간 핵융합에너지 개발 분야의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를 위해 양국 핵융합담당 실무과장을 수석 조정관(Principal Coordinator)으로 지정해 매년 양국간 핵융합 협력사업을 기획·조정 및 평가하는 회의이다. 제1차 회의는 지난 2004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각국별 조달키로 되어있는 ITER 주요장치 제작에 대한 기술협력, 우리나라의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공동활용 방안, 핵융합분야의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공동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ER 프로젝트의 후발참여국으로서 핵융합 연구 및 ITER 공동개발분야에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1988년 이후 10여년간 약15억달러가 소요된 ITER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첨단 핵융합장치 제작기술 및 노하우 등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내년 8월 완공예정인 KSTAR 장치의 향후 정상 운영상태에 필요한 첨단 가열·진단장치등도 무상으로 이전받는 등 국내 핵융합연구개발 역량의 선진화 및 최첨단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 4,095억원 정부자금 지원 2011년까지 총 1차에너지 5%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올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4,095억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26.3%가 늘어난 것으로 부문별로는 기술개발 244억원, 보급사업 1,375억원, 보급용자 1,213억원, 발전차액 26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기술개발부문은 상업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태양전지소재 양산기술개발, 해상풍력 개발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2005년 대비 32.2%가 증액됐다.

또한 보급사업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490억원이, 보급보조사업 28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475억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30억원이 지원된다.

산자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급증하는 전력분야

신·재생에너지 소요예산의 충당을 위해 전력분야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특회계 지원예산은 1,765억원으로 지난해 2,886억원보다 축소된 반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예산은 2,330억원으로 지난해 355억원보다 대폭 증가됐다.

한편, 정부는 고유가 상환의 지속과 교토의정서의 발효 등 급격한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친환경 국산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오는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지난 2003년 12월에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매년마다 예산규모를 증액시켜 왔다.